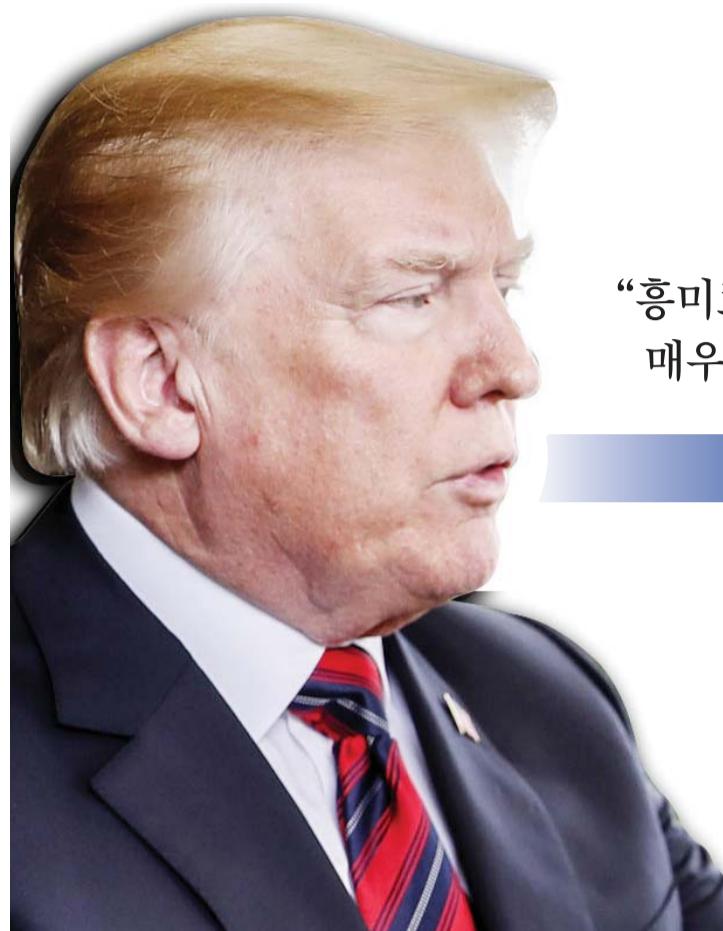




[산업]
대우조선해양
내년까진 일감부족 없어
올 추가수주·생산성 올인
05

	코스피 2470.15 (+18.57)		코스닥 876.55 (-1.93)
	금리 (국고채 3년) 2.22 (+0.03)		환율 (원/달러) 1075.20 (-0.70) (11일)

2018.06.12 AM 10:00 (한국시간)



“흥미로운 회담
매우 잘 될 것”

트럼프



비핵화·체제보장 '세기의 빅딜'

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역사적 만남의 시간이 다가왔다.

〈관련기사 2·3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지켜보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두 정상의 세기적인 만남만 남겨두고 있다.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에

게 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갖고 있다”면서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 번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만큼 완전한 해결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이 보다 긴 흐름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남북미간 진정성 있는 노력은 물론이다.

남북 대화도 성공적으로 병행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 대화에만

기댈 수 없다”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잊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참모진들에게 “내일 (회담이) 우리시간으로 오전 10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전날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해

하루씩을 묵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 준비와 외부 행사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리셴룽 쌍방총리와 오찬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내일 아주 흥미로운 회담을 하게 된다.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오후와 밤에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묵은 세인트레지스 호텔과 샹그릴라 호텔은 거리로 500미터 정도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외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숙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막판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보다 싱가포르에 일찍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숙소에서 참모들과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12일 북미정상회담이 2시간 가량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북미 양측은 정상과 보좌

진이 자리를 함께하는 확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단독·확대 회담 외에 따로 자리를 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오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로 최근 북미정상회담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통화는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통화에서 10일 리셴룽 쌍방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결과와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7일 방북 결과 등을 공유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정책은 없고 진흙탕 싸움된 6·13

지방선거 D-1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에 정태옥 ‘이부망천’ 논란 변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

2017년 5월 치뤄진 19대 대선 이후 1년여 만에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큰 우세가 예상됐던 가운데 선거 막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이부망천’ 발언 파문이 선거판을 훈들 최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영화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논란은 야당뿐 아니라 최근 소설가 공지영씨에 이어 당사자인 김씨까지 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하는 등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100% 가짜뉴스”라는 이재명

후보의 거듭된 부인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스캔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후보가 당선돼도 문제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도 이 후보의 사퇴 요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지사 선거 판세의 변화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후보의 당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지층 이탈을 차단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정태옥 전 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훈하면 부천하고 망하면 인천간다)’ 발언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 발언으로 정 전 대변인이 부천·인천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 전 대변인은 한국당의 윤리 위 소집 전에 탈당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한국당 탈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국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정의당 지방의원 후보들도 인천·부천 비하 발언으로 한국당을 탈당한 정 의원에 대해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정의당 연수구 송도동 신길동 시의원 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소송인단 613명을 모집한 뒤 정 의원에 대해 6억3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중금리 대출?… 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띡’

(7등급 이하)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 확대
위험성 높아 승인율은 저조
4~6등급 대출비중만 높일 듯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인 A씨(40)는 최근 중·저 신용자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다.

정부가 중·저 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소외가 일 반화되면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민간 중금리 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저축은행의 4~7등급 대출액 비중은 78.4%였던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하반기부터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신용등급 4~10등급으로 확대하는데도 현 비중을 유지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70% 이상 공급은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4~7 계
은행	3.0	9.1	14.6	18.0	21.3	16.4	13.2	2.9	1.5	68.9
상호금융	2.4	7.3	7.1	19.9	25.6	25.1	10.0	2.3	0.3	80.6
저축은행	5.9	7.0	8.2	18.1	27.3	21.7	11.3	0.5	-	78.4
여전사	4.0	7.1	9.1	17.0	24.7	25.4	12.3	0.4	-	79.4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서 16.5%로 인하·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대상에 저신용자(7~10등급)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민간 중금리 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저축은행의 4~6등급 대출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여 저신용자의 소외현상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7등급 이하 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위험성이 높아 승인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7등급 이하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4~6등급 신용 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저축은행 입장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6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